

# ‘스캔들 영향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 공약 성공

각종 구설수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더민주, 경기도서 20년 만에 지사 배출  
입지 굳히고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난공불락’이었던 경기도를 무너뜨렸다. 지난 1998년 임창렬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배출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됐다.

이 당선자의 승리 배경은 여당 프리미엄과 함께 검증된 시정 능력이 꼽힌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성남시장 임기 때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지난 8년 동안 성남시의 무상급식, 청년배당, 6700억원 부채 상환 등 그의 대표 업적이 부각됐다. 경기도민들은 “이재명의 실천력과 추진력은 높게 평가한다”며 표를 던졌다.

13일 이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세상, 자부심 넘치는 경기도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

소했다. 이 당선자가 향후 문재인 정부와 발을 맞춰 경기도를 운영해 나갈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경기 퍼스트’ 공약을 내세우며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서울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공조(共助)가 필수적인 공약들이다.

아울러 이번 당선은 그를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2위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정계를 잠정적으로 떠나게 되면서 1순위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정당 내 입지가 좁은 것이 그의 단점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당 내 입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여당 내 앞서가는 ‘잠룡’으로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당선자는 성남시장으로서 증명한 복지정책

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배당, 무상교육,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배당’ 정책 시행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 누구에게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그 결과 성남지역 화폐 유통량은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으로 1.8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만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경기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이재명표 복지 정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도 ‘여배우 스캔들’은 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당선자를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한편 이 당선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치렀다. 이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일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도 성공해 8년간 시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던 이 당선자는 이제 대권도전에도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진영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



연합뉴스 1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오른쪽)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민주, 호남텃밭 가볍게 사수

전남도지사 김영록  
광주시장 이용섭 당선

민주당의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과 광주 지역은 더욱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철웅성 같은 지지층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후보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며 시장으로 당선됐다. 광주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당선인이 83.6%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나경재 정의당 후보가 6.2%,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 5.1%, 윤민호 민중당 후보가 5.0%로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남성과 여성, 전 연령대, 전체 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자영업·블루칼라·화이트칼라·가정주부·학생·농림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광주 두암동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일찍부터 자녀의 손을 잡고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로 붐볐다. 자녀를 품에 안은 채 투표소를 찾은 임아름(34)씨는 “집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봤다”며 “후보자들의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문재인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집권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 시장·구청장·시구의원 후보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광주 경제를 활성화시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200만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때로는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아픈 회초리로 지금껏 키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시민들의 은혜에 결초보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당선인은 장애인 직업교육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캠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고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치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등이 동권 보장과 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영록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출구조사에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82%를 차지하며 8.3%의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를 따돌렸다. 김 당선인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VAN)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핀테크(Fin-Tech) 기술을 활용한 ‘고향사랑 전남페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없는 ‘고향사랑 전남페이(J-pay)’ 도입과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민주당과 평화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목포에서는 유권자층에 따라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목포 북항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직장인 박종현(38)씨는 “젊은 유권자들(더불어민주당)과 고령의 유권자(민주평화당) 사이에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번에 당선된 후보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 제주·대구·인천 등 격전지, 이번은 없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분류됐던 경기, 제주,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서 이번은 없었다.

13일 오후 6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종 논란에도 선거기간 내내 대세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예측됐고, 제주도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당선된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는 민주당 임대운 후보의 추격을 물리치고 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현직 시장인 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지사 선거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후보가 독식했던 자리로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도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 지사인 남경필 후보와의 대결에 큰 관심을 모았다.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승부처였던 만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거침없는 비방과 폭로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과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

**제주** 네거티브 공방속 원희룡 당선

**대구** ‘보수 철웅성’ 권영진 뽑혀

**인천** 유정복 한국당 현직 시장

누르고 민주당 박남춘 당선

이번에는 여배우 스캔들 등을 언급하며 협공을 펼쳤다. 여배우 스캔들을 놓고는 야당뿐 아니라 소설가 공지영 씨에 이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도 이른바 ‘공짜 골프’ 논란으로 후보 간 형사고발을 주고받는 등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리조트 특별 회원권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자 원 후보 측도 무고죄 고소로 반격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원 후보는 자신의 첫 공약으로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고 문 후보는 이에 맞서 민간·공공부문 인턴십 지원과 같은 ‘청년뉴딜 일자리’ 확대, 사회경험·전문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청년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한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육지부 나들이를 위해 항공료와 뱃값의 50%를 지원하고, 택배비·물류비 지원을 통해 도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의 물류비용을 낮춰 도내 생활물자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맞서 원 후보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사회복지사 등 매일 특검 대상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의 텃밭 역할을 해온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 막판 최근 및 따른 여론조사에서 ‘보수 철웅성’으로 여겨져 온 대구에서마저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자 추미애 당 대표까지 나서 지원 유세를 벌이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임대운 후보는 추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대구·경북 첫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자리 만들기에 열을 올렸다.

반면, ‘수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대규모 세몰이나 청중 동원 방식은 지양하고 되도록 시민들을 눈높이에서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운동 막판 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더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 논란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천시장 선거는 역시 한국당의 유 후보가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에도 성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진=최신용 기자 grandtrust@